주 제:	" 초대의 응답"	"연중 제 28 주일 "	2008 년 10 월 12 일
복음 묵상:	[마태 22,1-14]	[이사 25,6-10 ㄱ]	[필립 4,12-14.19-20]

처음에 초대받았던 이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할 줄 모름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마치 그 잔치는 당연히 내가 가야하는 잔치라고 여기는 마음은 은총으로 주어지는 잔치 초대에 대한 감사함을 잊게 만들고 감사함을 잊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은총의 선물로 베풀어지는 잔치가 거추장스럽게만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는 인생이지만 영광의 자리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복을 단정하게 입었는지 자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선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잔치의 음식을 진정 하느님의 몸으로 믿고 감사드리고 있는지 반성해볼 일입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실로 은총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예복을 단정하게 입고 선행의 사랑을 나누면서 잔치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바로 미사입니다.
(군종 이 해상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반주자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 10/2-10/14 **예정으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의 축복안에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조 경자 율리아나 자매님** 10/5-11/9 **예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좋은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연 하연 아네스 자매님,일요일 아침시간 강의 관계로 2 개월 가량 성가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주님의 지혜주시어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모친의 간병차 9/27 일 한달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루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기쁨 속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묵주 기도 의 영성

-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다.
-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 만약 묵주 기도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면, 왜 성모님 상중에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모님 상이 있겠는가?
- 만약 묵주 기도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면 성모님이 묵주를 들고 이도하는 모습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바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 그리스도교 신자는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깊숙이 묵상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묵주 기도는 오히려 성모님을 슬프게 한다.
- 왜냐하면 성모님의 중심은 예수였고, 성모님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으므로 묵주 기도의 모든 묵상은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

묵주 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약속

- 1872 년, "만일 네가 구원을 찾는다면 묵주기도를 전파하라."
- 묵주의 구일 기도: 1884 년, "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청의 뜻으로 감사의 뜻으로 각각 세 번의 묵주 기도를 9 일간 할 것이다.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3*9+27 일/간청, 감사 27*2=54 일)
- 파티마의 기도(1917 년 7 월 13 일):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구원의 기도를 알려 주셨다.
- 위대한 약속: 1917 년 파티마에서 루시아에게 발현하셨을 때 여섯 달 동안 계속하여 첫 토요일에 고해성사, 영서체, 묵주기도를 바치면 죽을 때 필요한 은총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복음 **[마태 22,1-14]**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오 잔치에 초청 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 놓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 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 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1분 명상

♡" 황금만 보였습니다. "♡

중국의 여씨 춘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주 대낮, 시장 한 복판에 벌려놓은 금은방에 놓인 황금 덩어리를 넋 빠진 듯이 쳐다보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내는 느닷없이 그것을 집어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장바닥에서 도망을 가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건을 훔친 사내는 마침내 붙들려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기가 막힌 재판관이 사내에게 묻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도둑질 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그때 제 눈엔 황금만 보였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황금은 안보이고 주님은 보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 명상

"면도하고 기다린 사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그릇된 생각이 600 만 유태인을 가스실로 몰고 갔습니다. 모두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 유태인 의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리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는 그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치는 매시간마다 가스실로 보낼 유태인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새파랗고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하고 있는 활기찬 젊은 의사를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스실행이 하루 이틀 이렇게 미뤄지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했고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느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이 젊은 의사의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겁니다.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는…**